

# SM 떠나는 티파니·수영·서현... '소시' 해체?

## 5명 남은 소녀시대 어디로 가나

SM "다른 소속사일뿐 해체 아니다" 5인체제...사실상 완전체 활동 불가능

케이팝을 상징하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2014년 멤버 제시카의 탈퇴로 한차례 위기를 겪은 소녀시대는 이후 8인 체제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지만 최근 티파니, 수영, 서현 등 3명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기로 하면서 그룹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티파니에 이어 수영과 서현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찌감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티파니는 현재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 연기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추가로 재계약을 논의하던 수영과 서현도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SM과 결별했다. 나머지 멤버 태연 씨니 효연 유리 윤아 등



현역 최장수 걸그룹 소녀시대가 티파니에 이어 수영, 서현(왼쪽부터)의 재계약 불발로 존폐의 기로에 섰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5명은 최근 재계약을 마쳤다.

멤버 8명 가운데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되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향후 행보에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새 음반도 내고 콘서트도 벌이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며 또 한번

소녀시대의 스타파워를 입증한 만큼 여러모로 충격으로 다가 수박에 없다. 일본과 중국 연예매체도 소녀시대 재계약 불발 소식을 전하며 축하를 드러냈다.

일단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는 SM에게도 팬 여러분께도 아주 소중한 의미 있

는 그룹이다. 멤버들 또한 해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멤버들이 각기 다른 소속사에 몸담게 되면 완전체로 다시 활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그룹 절반에 가까운 3명의 멤버가 떠난 후 5인 체제의 소녀시대는 무의미하다. 각 멤버들 보다 그룹 자체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인 하지만, 5인 체제의 소녀시대는 그들이 가진 스타파워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SM 측은 "소녀시대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멤버들과 논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시대가 장기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멤버들의 향후 활동 계획이다. 멤버들은 장기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아이돌'의 이미지를 벗고 개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태연은 솔로가수로 활동하고, 윤아와 유리, 서현, 수영은 연기자로 입지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씨니, 효연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숫자뉴스

5000원

그룹 천상지희 출신 가수 스타파니의 하

루 식비다. 오랜 시간 발레를 해왔던 까닭에 몸매 관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스타파니는 다이어트를 위해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10일 공개된 한 패션화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 #해시태그 킷



## '유리정원' '마더!'...화제작 부산에 뜬다

'맨헌트' '세 번째 살인' 등 주목할 시선 '오픈트크'엔 장동건·문근영 등 출연



부산국제영화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번째 가을이면 어김없이 부산에서 벌어지는 연중 최대 규모 영화 축제다. 12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장동건·윤아가 진행하는 개막식으로 문을 열어 75개국에서 초청한 300편으로 21일까지 관객을 맞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극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작품을 먼저 찾아보고, 그 작품을 만든 감독 및 배우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감상과 교감의 장으로 저력을 쌓아왔다.

### ●티켓매진...화제작 예약

올해도 어김없이 티켓 예매시작과 동시에 매진된 영화가 여러 편 탄생하고 있다. 문근영 주연의 '유리정원'은 개막작인 만큼 단연 화제다. 유리정원에 스스로 고립된 과학도가 겪는 일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영화다. 개막작 후보 9편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유리정원'을 택한 이유를 두고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연출자인 신수원 감독의 머릿속이 궁극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영화제 대표 색인인 갈라프레젠테이션 초청작 역시 매년 1순위.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는 주인공 제니퍼 로렌스의 한국방문이 부산에 팬들의 아쉬움을 사지만, 작품 자체를 향한 호기심과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홍콩 우위현 감독과 하지원이 합작한 '맨헌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도 마찬가지다.

일본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는 섬뜩한 제목과 달리 소년소녀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 일본에서 먼저 흥행하면서 그 입소문이 국내 팬에게 전파돼 영화제 화제작을 예약했다.



영화 '유리정원'의 문근영

### ●스타·감독의 '부산행'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면 일단 해운대 해변에 자리를 잡는 것도 방법이다. 13일부터 첫 주말이 끝나는 15일까지 스타들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비프릴리자 야외무대에 집중된다.

만남을 넘어 대화까지 가능한 기회를 엿본다면 '오픈트크'가 제격이다. 13일 배우 문소리와 '리브레터'로 친숙한 나카야마 미호의 동반 토크를 시작으로 배우 장동건과 이제훈, 문근영의 오픈트크가 15일까지 이어진다. 저마다 '2017년 한국영화'를 상징할만한 인물이다.

흥행 영화의 주역도 부산에 집결한다. '남한산성'의 주인공들이 13일 비프릴리자에서 무대인사를 갖고, 신작 '대장 김창성의 조선웅-송승헌'도 같은 장소에서 작품을 소개한다.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감독들도 나선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올해 뉴커러츠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아시아 신인감독들의 작품을 심사한다.

### ●한국영화의 '새 얼굴'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흐름을 미리 엿보는 자리. 신인 감독과 배우들의 도전은 한국영화의 새로운 자양분이란 사실에서 출품 목록을 채운 '낯선 이름'에도 주목해야 한다.

안재홍·이승 주연으로 젊은 가사도우미와 담배깡이 얽힌 이야기를 그린 '소공녀', 배우 이자 감독인 이환이 연출한 여고생 이야기 '박화영'도 그 중 하나다.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 부분에 초청된 두 영화는 감각 있는 신예 감독이 풀어내는 동시대의 이야기로 공통점이 상당하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 연예현장.jpg

## 영화 '미옥' 김혜수 "스페셜한 액션 기대하세요"



배우 김혜수가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여성 중심의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다. 11월9일 개봉하는 '미옥'이다. 김혜수는 10일 열린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나는 다치는 걸 무서워하는 겁쟁이다. 그래서 액션 작품 제안은 거절했는데 뒤늦게 하게 됐다"면서 "액션을 하면서 확실하게 확인한 건 예상대로 체력과 땀집이 아주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한예슬 vs 정려원, 절친대결 승자는?

'20세기 소년소녀' '마녀의 법정' 출연 소속사·동갑내기·패셔니스타 공통점

절친 사이로 알려진 정려원과 한예슬의 맞대결로 월·화요일 밤이 뜨겁다.

정려원과 한예슬은 9일 나란히 첫 방송한 KBS 2TV '마녀의 법정'과 MBC '20세기 소년소녀'를 통해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외에서는 뜨거운 우정을 과시하지만, 오랜만의 지상파 복귀인 만큼 연기자로서 경쟁도 뜨겁다.

두 사람의 경쟁이 더욱 흥미진진한 것은 대중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 회 시청률 경쟁에서 정려원의 '마녀의 법정'은 6.6%(닐스코리아), 한예슬의 '20세기 소년소녀'는 4.2%를 기록했다. 이에 한예슬은 SNS에 "우리 운명야. 내 친구 연기 너무 잘하니가 힘들다. 나도 잘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정려원에 축하를 보내는 동시에 분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두 사람에게 이번 작품은 단순한 새 작품이 아니기에 향후의 대결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려원은 2013년 MBC '메디컬 탑팀' 이후 4년 만, 한예슬은 2014년 SBS '미녀의 탄생' 이후 2년 만의 지상파 드라마다. 전작이 그리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해 이번 작품은 그 아쉬움을 씻을 기회다.

정려원은 새 작품에서 도전을, 한예슬은 '잘하는 것'을 택했다. 차분한 여성미의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던 정려원은 '마녀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거친 매력을 보여준다. 유능한 실력을 지녔지만, 모난 성격에 일단 부딪히고 보는 당찬 캐릭터다. 한예슬은 대중에 익숙한,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모습이다.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안전한 노선을 선택해 대중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두 사람은 극중 패셔니스타일로도 뜨거운 시선을 받는다. 평소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만큼 벌써부터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는 두 사람의 패션 관련 글이 게시됐다. 극중 정려원은 검사역에 맞게 재킷과 셔츠, 정장바지 등으로 따라하기 쉬운 의상을 보여준다. 한예슬은 화려함과 캐주얼의 극과 극을 오가는 스타일로 승부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여성, 안방극장서 폭력·부조리에 맞서다

'마녀의 법정' '부암동...' 사회 폭력 고발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하우스푸어 메시지

사회적 폭력 그리고 부조리에 맞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오늘도 여성들은 높은 장벽 앞에서 세상의 절반으로서 역할을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런 현실을 온전히 그려내고 개선하는 데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도 한몫 단단히 할 체비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드라마가 연일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이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맞서는 검사이거나, 남성의 폭력과 사회적 억압에 대항하는 주부이거나, 피곤한 현실에 아파하는 청춘이다.

검사는 9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마녀의 법정' 속 정려원이다. 출세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았던 그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맞선다. 이미 초반 부장검사의 성취감과 추행을 폭로하며 현실에 맞닥뜨리기 시작했

다. 이제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 거리를 던져 줄 것이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자들은 11일부터 선보이는 케이블 채널 tvN '부암동 복수자들'의 재벌가 딸 이요원과 대학교수의 부인 명세빈이다. 여기에 생선장수 라미란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아들을 위해 복수에 나선다. 계층적 위화감에서 벗어나 온갖 폭력에 맞서는 세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9일부터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정소민은 이 시대 청춘의 목소리를 전한다. 극중 하우스푸어로 살아가는 그는 홀리스(이민기)를 집에 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수많은 청춘의 자화상을 자임한다.

이처럼 현실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여성 캐릭터들은 '시그널', '비밀의 숲', '조작' 등에 등장했던 형사와 검사, 기자 등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게 했던 이들이 이어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 역시 현실의 아픔과 새로운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전망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김병만 "정글 갈 준비 끝"

역시 '건강의 달인'답다. 개그꾼 김병만이 10일 SNS에 "의료진과 재활팀의 조언에 따라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다음 번 정글에서 불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의 그는 산악자전거를 타며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이다. 김병만은 7월 스카이다이빙 국가대표 세계대회준비를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훈련을 받다 척추골절상을 입고 재활에 전념해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김병만 #정글의사나이 #부활신호탄 #기다려라

## 이 영화

8 스포트라이트



## 진실 추적하는 기자 그 뒤를 받친 편집장

부족 언론과 기자들 소재 삼은 드라마가 늘었다. 배우 유준상은 대한일보 탐사보도팀 스포트라이트를 이끌고(SBS '조작'), 김주혁은 '팩트'를 외치면서 HBC방송사 앵커 자리(tvN '아르곤')에 앉아 뉴스를 전달한다. 이들의 모습은 '정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보인다.

비슷한 시기 마지 유행처럼 기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방송된 여파인지 줄곧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이들 드라마가 막 기획될 무렵인 지난해 초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작품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다. 수상 직전 국내서 개봉했지만 관객은 30만 명에 그친,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영화이지만, 최근 등장한 드라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조작'과 '아르곤'이 허구의 인물과 사연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면 '스포트라이트'는 실화를 그대로 옮겼다. 영화 주인공은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에서 탐사보도를 하는 스포트라이트팀. 이들은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추적하지만 신성한 영역을 공격한다는 반대여론과 은폐시도에 맞닥뜨린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자'는 신념으로 후퇴 없이 전진한다.

'스포트라이트'에는 있고 '조작'이나 '아르곤'에 없는 것은 진실을 쫓는 기자들을 응원하는 '데스크'의 존재다. 성추행 취재를 지시한 인물은 신문사에 새로 부임한 편집장. 사건을 은폐하려는 추기경의 비위부터 기사로 알리자는 기자들의 목소리에 이 젊은 편집장은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시스템을 지적해야 한다"며 더 큰 그림을 권유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포트라이트'를 두고 "이 시대 최고의 저널리 영화"라고 평했다. 이혜리 기자